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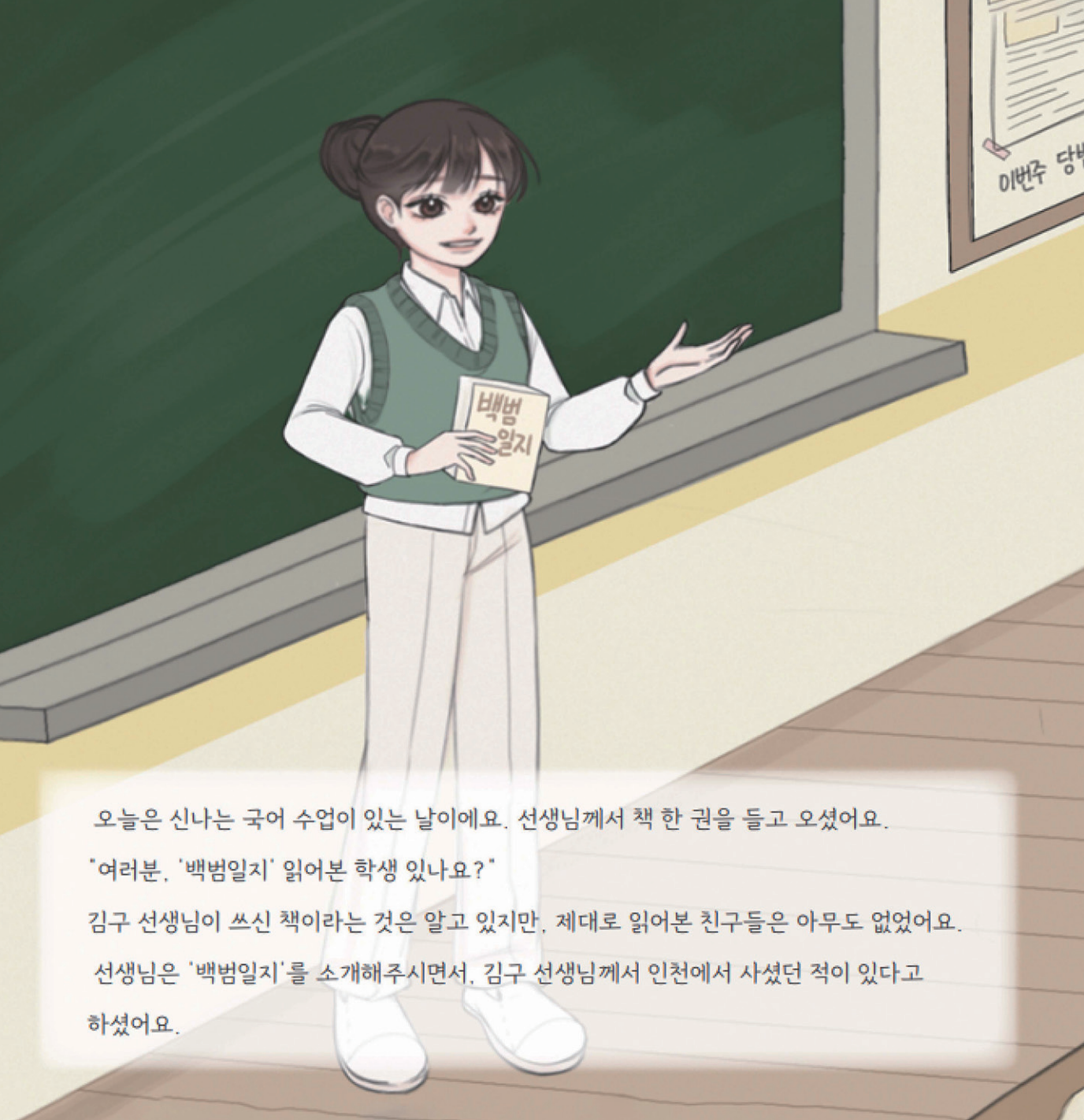
청년 김구

글·그림 고은솔 외 10인

청년 김구

글·그림 고은솔, 곽지우, 김나현, 김보경, 김아영,
김아진, 김지인, 박노아, 박서연, 박선희,
방선재, 이현서, 정혜교





오늘은 신나는 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백범일지' 읽어본 학생 있나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읽어본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백범일지'를 소개해주시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사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멀지 않은 우리 마을에 있다고 하시자,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보면 안돼요?”

친구들의 아우성에 선생님은 허락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마을에 남아있는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를 찾으러 나가보자.

다녀와서는 꼭 ‘백범일지 읽기’ 약속할 수 있지요?”

“네.” 우리는 큰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도착한 곳은 학교 옆에 있는 중구 신포동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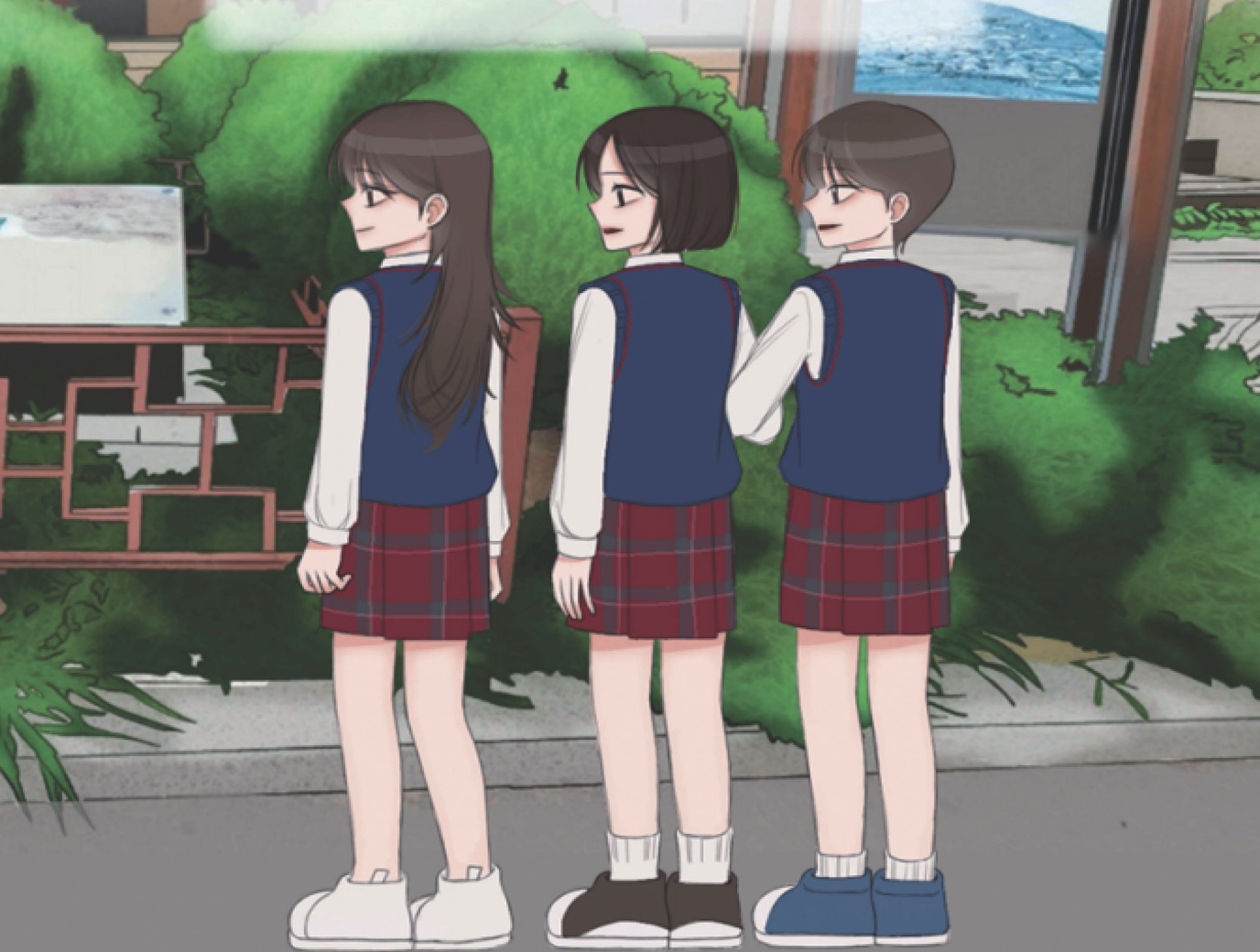
신포국제시장을 지나 스카이다워 오피스텔 앞까지 걸어왔어요.

"선생님, 김구 선생님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들어 볼멘소리를 했어요.



"다 왔어요, 여기예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곳이 바로 과거의 인천 감옥, 즉 감리서가 있던 곳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계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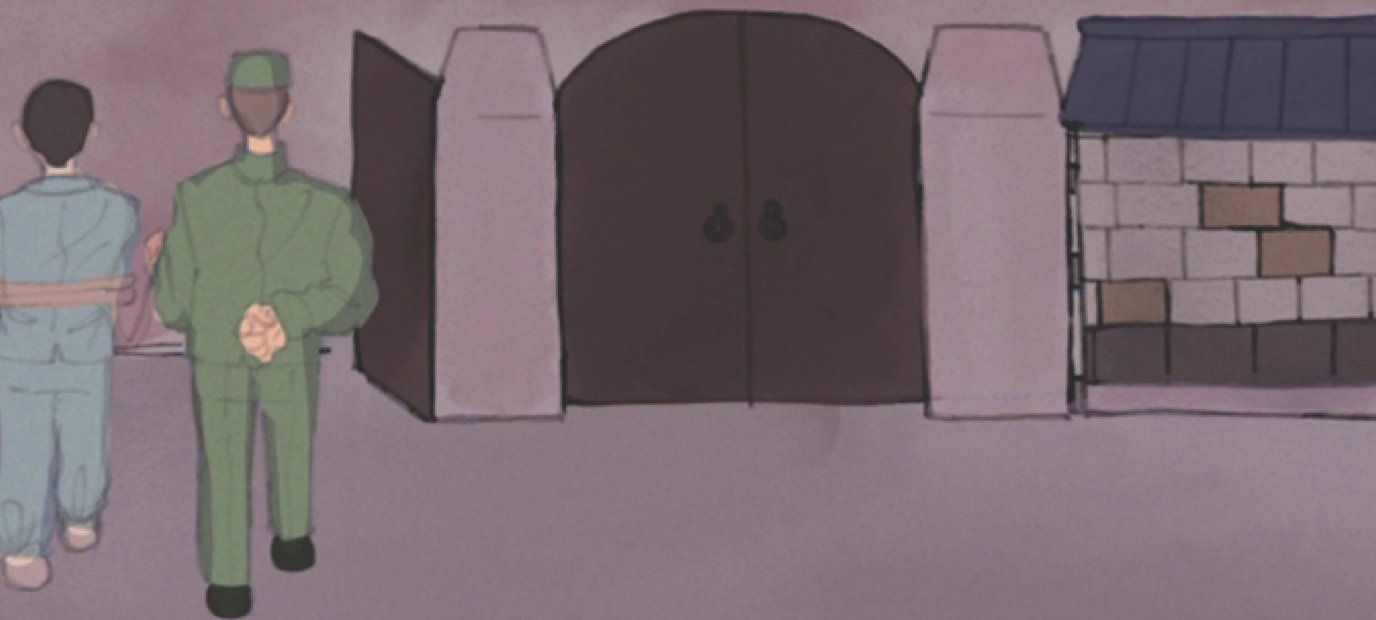


1896년 황해도 안악 해안 지역인 치하포에 있는 한 주막.

21세 청년이었던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에 따른 원수를 갚고자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죽인 죄로 인천 감리서로 이감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청년 시절 이름이 김창수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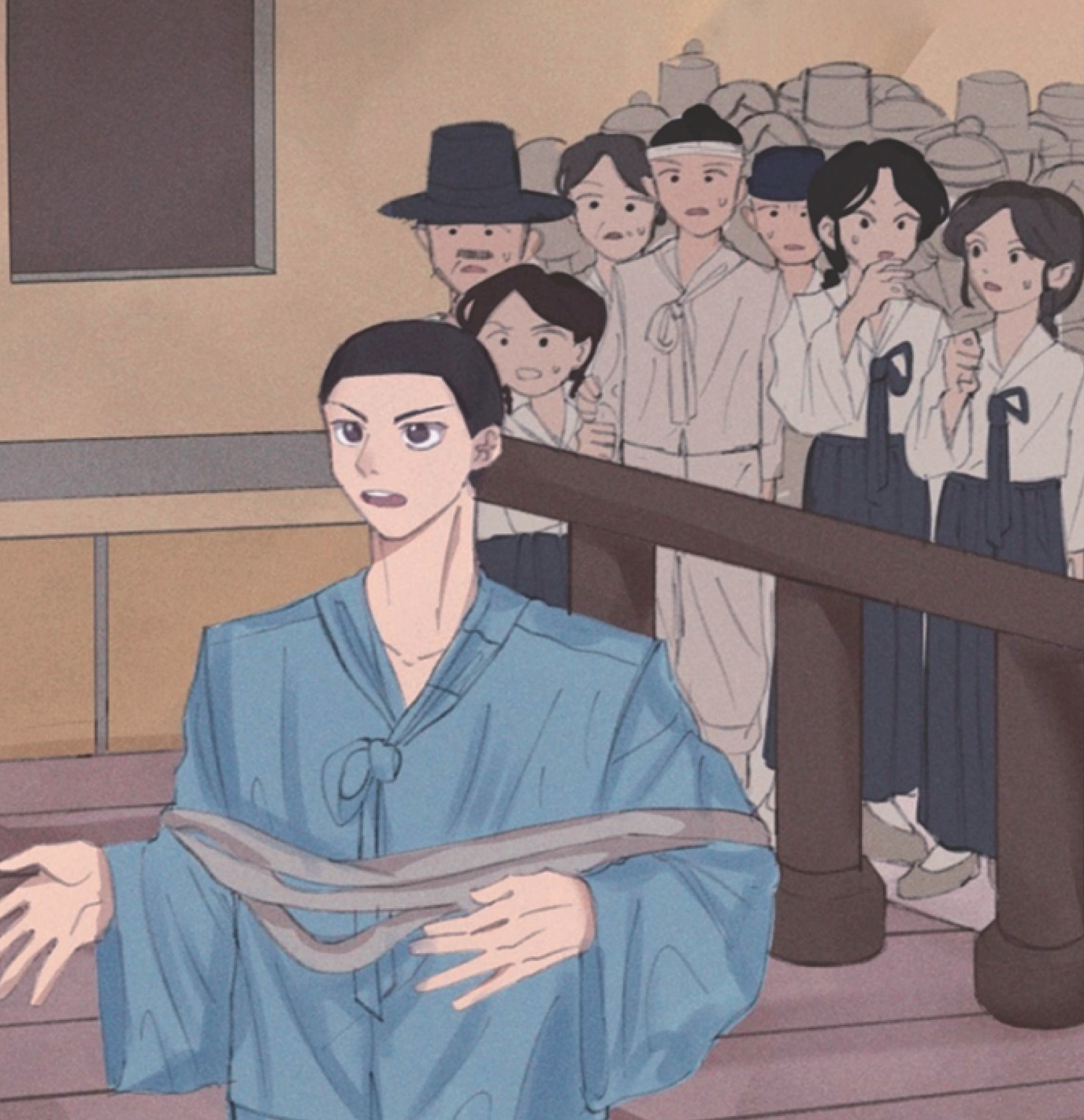




신문 과정에서 김창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 나는 시골의 일개 천한 출신이나, 백성의 한 사람 된 의리로
나라의 래괴한 치욕을 당하고 밝은 태양과 푸른 하늘 아래
나의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다. ”

그리고, 백성의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감리사도들을 향하여 크게 호통을 쳤지요.
21세의 어린 청년의 당찬 꾸짖음에 감리사도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김창수의 신문 과정을 보기 위해
경무청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김창수의 용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 상씩 차려서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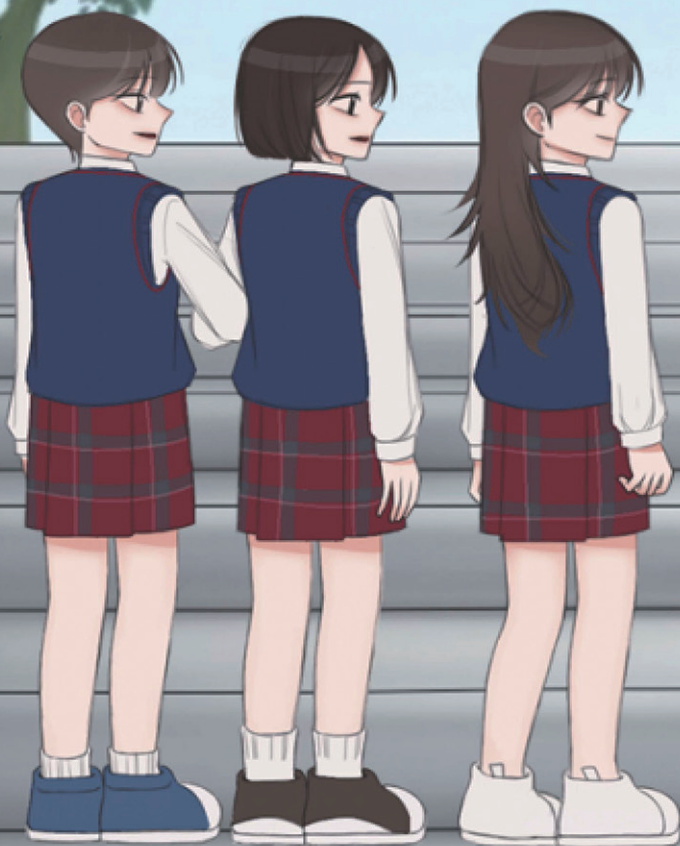
당시 감옥은 죄수들의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일해야 겨우
죽이라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김창수는 감옥을 나오는
그날까지 그 음식을 죄수들에게 먹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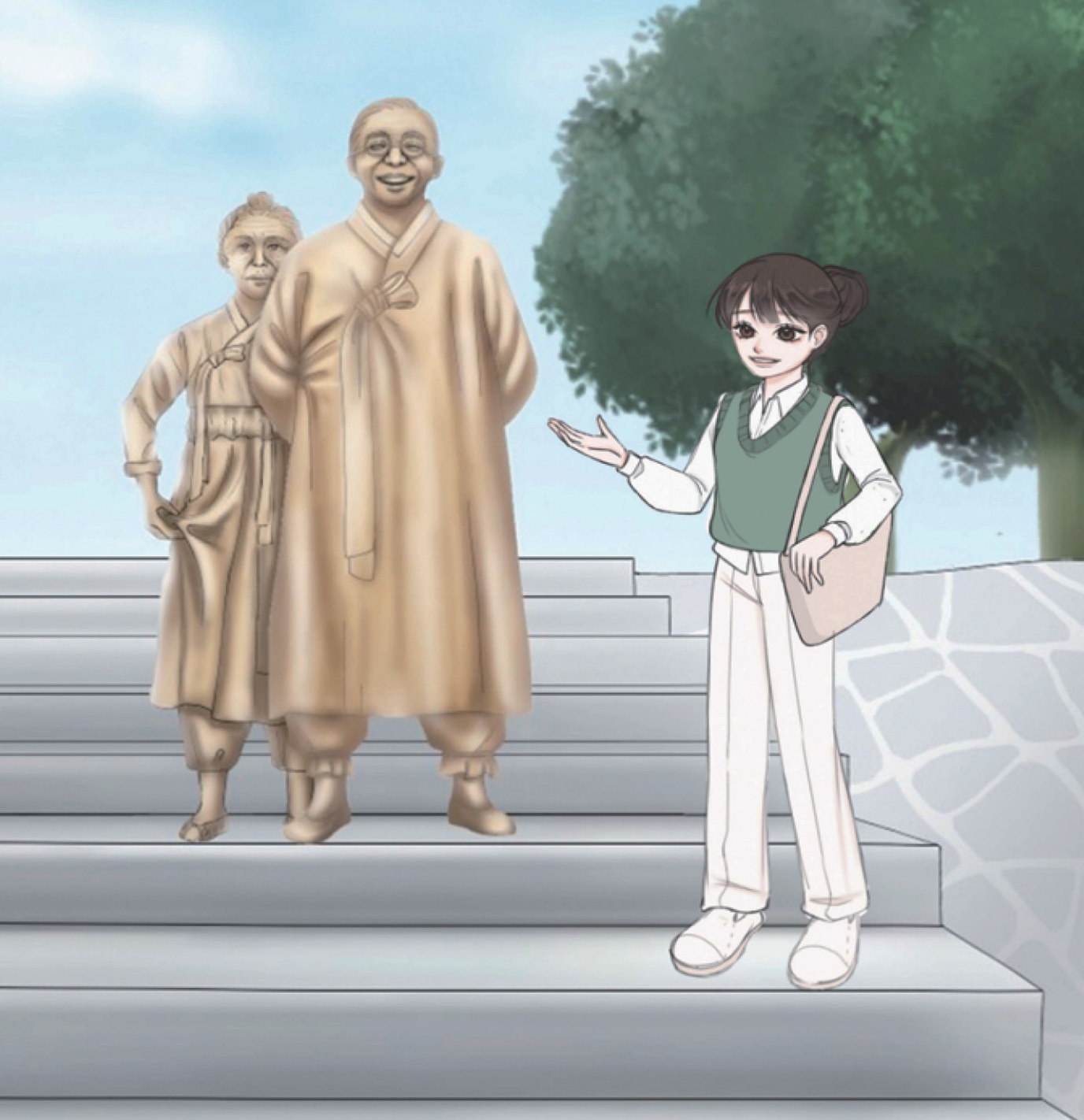
감옥 밖과 안, 인천 항 내 모든 사람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 한 곳이 남아있다면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더이상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고 투정을 부리려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나타났어요.
“우와~ 멋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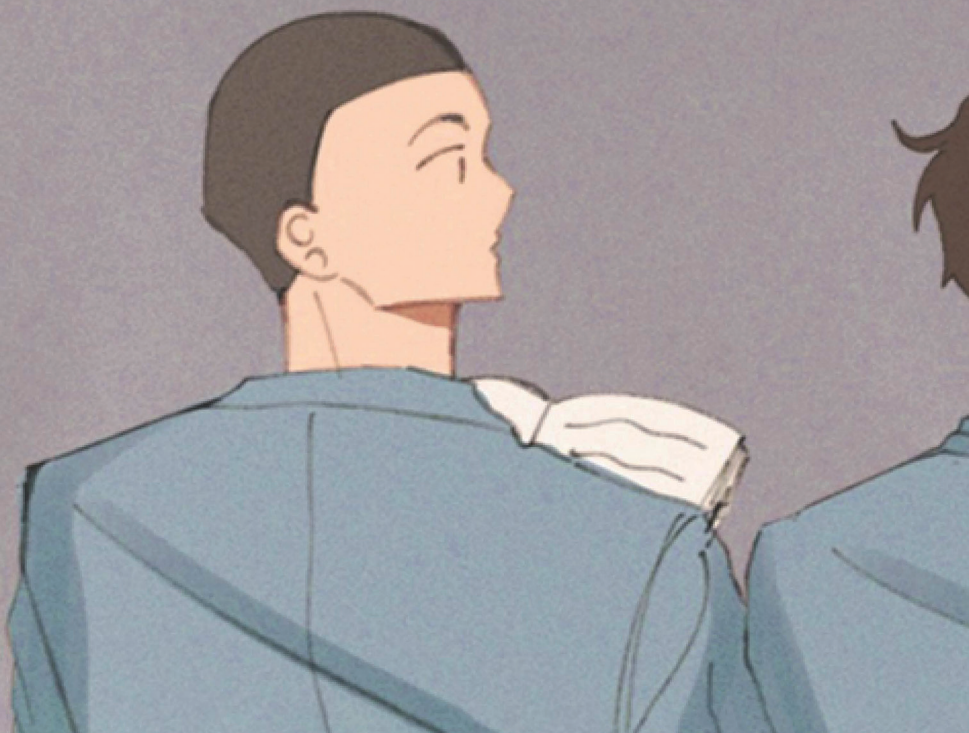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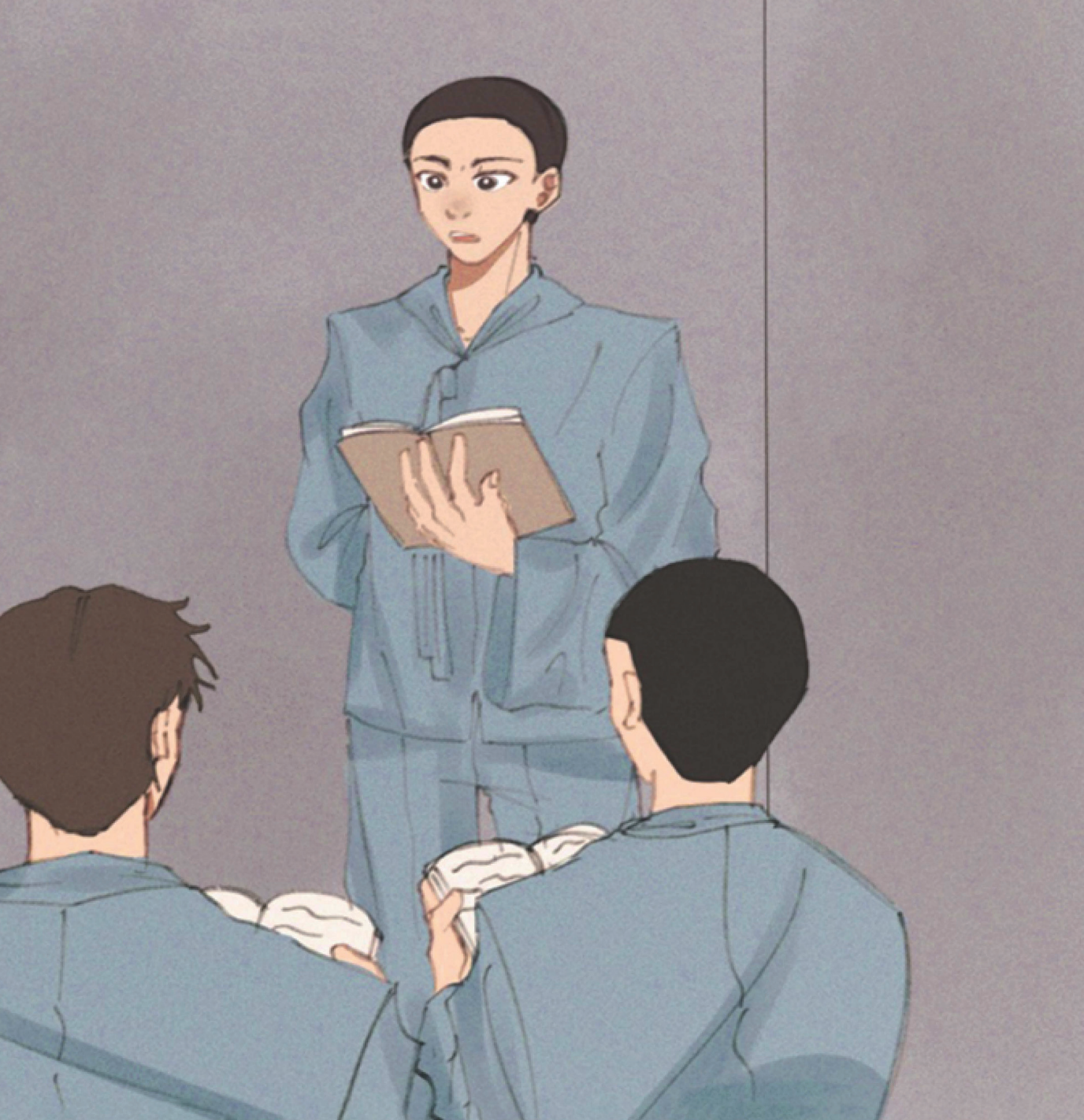




당시 인천은 처음으로 개항된 곳으로 각국인과 서양의 문물이 가득했어요. 김창수의 남다른 모습에 반한 감리서 직원이 「세계역사지지」, 「태서신사」 등 서양 근대 문물에 관한 책들을 구해 주었어요.

책을 읽으며 김창수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조차 알지 못하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당시 창간된 신문에 김창수가 인천감리소에 들어온 후에는 '옥'이 아니라 '학교'라는 내용이 실리게 될 정도였지요.







三年を以て尚未蒙賜米なる事五望に及ん
 本部より下題音にきき分りしに決意す
 此を報素に未詳を如是迄指す今今を
 所給也

寛平元年大抵賤子昌洙が本以て以て
 親愛服を日人の口より或以て強盗を
 古より以て之なり^立と云ふに之を寛平元年に於て
 仁川監理新設之下に之を以て之なり
 其可尚日外難校
 法部より官不
 又果是に注請願
 四七代獨子昌洙の寛平元年に於て
 府我れ所を以て之なり
 此天より之なり
 十代より之なり

元平二年二月

弘安元年八月廿二日



첫 번째 수감 인천의 조력자들

“선생님 여기 김주경의 시가 있어요?”

“맞아요, 감옥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큰일을 할 수 없으니,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장래의 큰일을 위하여 탈출을 권유하는 시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탈출했어요?”









1898년 3월 19일, 김창수는 아버지께 삼릉창을 넣어 달라 말하고, 압리에게 죄수들에게 줄 쌀과 고기,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흥겨운 잔치를 즐기는 사이 김창수는 마루 속에 들어가 벽돌로 깎은 구멍을 삼릉창 끝으로 들춰내고, 그 아래 땅속을 파고 들어가 옥 바깥으로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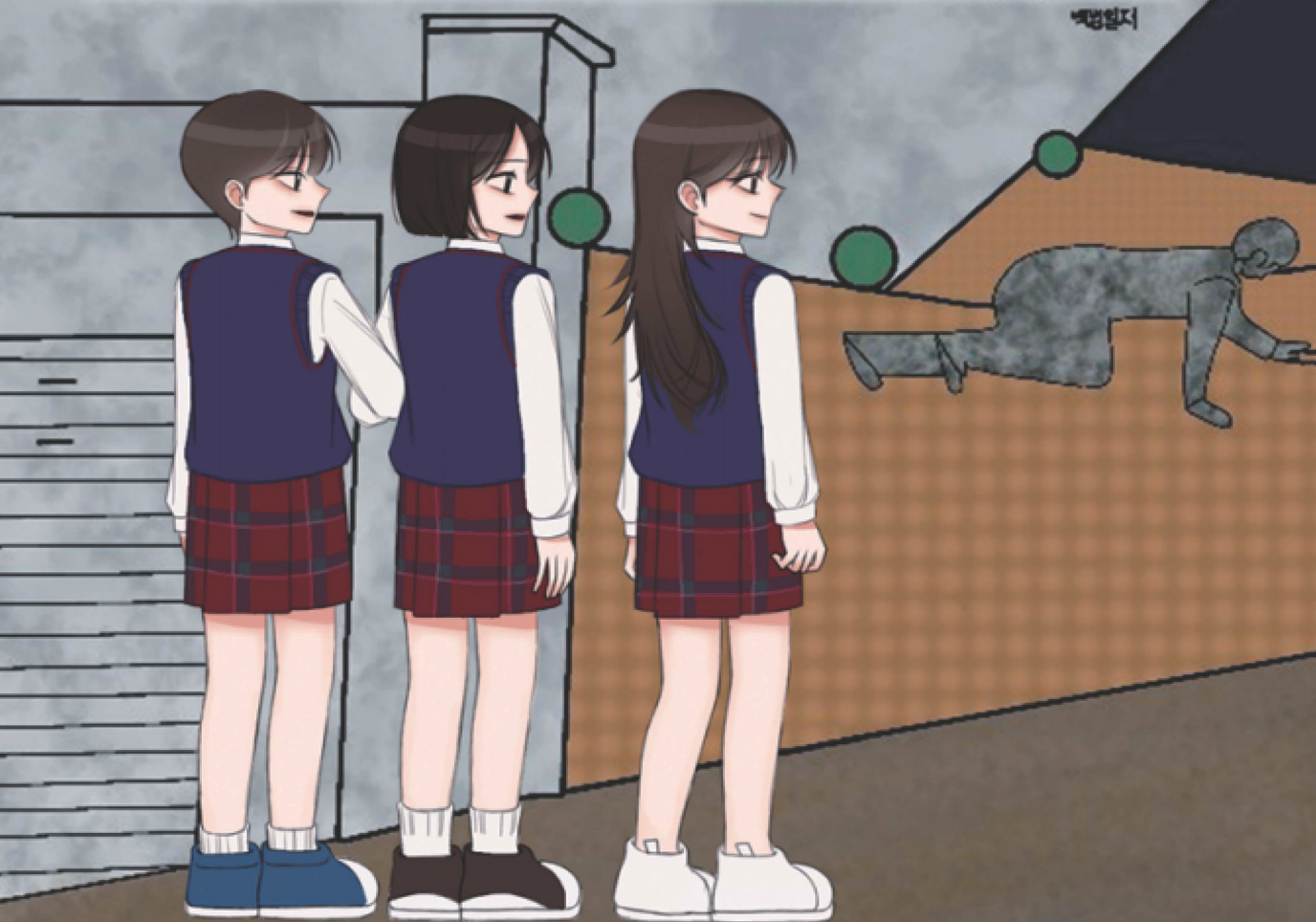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탈옥한 것을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탈옥을 함께 하기로 했던 동료들을 데리러 자신이 나왔던 구멍을 통해 다시 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명의 죄수를 데리고 옥 밖으로 나왔어요. 마침 삼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상 소집에 간 터라 아무도 없는 삼문을 지나 탈옥에 성공했어요.

“우와~~~”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흠뻑 취해 모두 손뼉을 쳤어요.

“그래서 김창수는 어디로 갔어요?”

“인천 감리서를 빠져나온 김창수는 일행과 바로 헤어졌어요. 인천을 왕래한 경험이 없었던 김창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새 모래사장을 헤맸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서야 아직도 감리서 뒤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백영일지



"밤새 걸었는데 아직도 감리서라니, 힘이 빠졌을 거 같아요."

"그랬겠죠. 그래도 힘을 내서 주위를 둘러보니 천주교당 뽕족집, 즉 답동성당이 보였어요. 뽕족집 쪽이 동쪽이라 생각하고 걸어갔지요. 그 후 인천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교육활동과 나라를 위한 구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노역현장에서의 회고

백범김구 선생은 1914년 인천감옥에 이감되면서 인천항 축항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조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축항 공사는 7년에 걸친 1918년에 마무리되었다.

인천은 내 일생에 있어 뜻깊은 곳이다. 21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23살에 탈옥 도주했고, 39살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감되었다.

백범일지-





인천축항공사현장모습
출처:인천축항도록

1911년, 36세의 김구는 안악사건과 105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17년형을 선고받고 경성감옥에 수감되었어요. 그곳에서 일본으로부터 온갖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일본 간수와 대립한 일을 계기로 노역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인천감옥으로 다시 오게 되었지요.

이곳은 김구 선생님이 축항 공사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던

'노역의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선생님, 다른 죄수와 죄사슬로 허리가 묶여 있어요."





"그렇죠, 백범일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여러 번 무거운 짐을 인 채로 높은 사닥다리에 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하였으나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와 마주 맨 사람은 대개 인천에서 구두 켄레나 담뱃갑이나 훔치고 두서너 달 징역을 지는 편이라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모진 고문도 이겨내던 김구 선생님이 투신자살을 생각할 정도이면 강제 노역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네." 우리는 슬프게 대답했어요.

조금 더 올라가자,

‘청년 김창수에서 민족지도자 김구로 단련되다.’

라는 문구가 담긴 곳이 나타났어요.

“오늘 탐방을 해보니, 인천 신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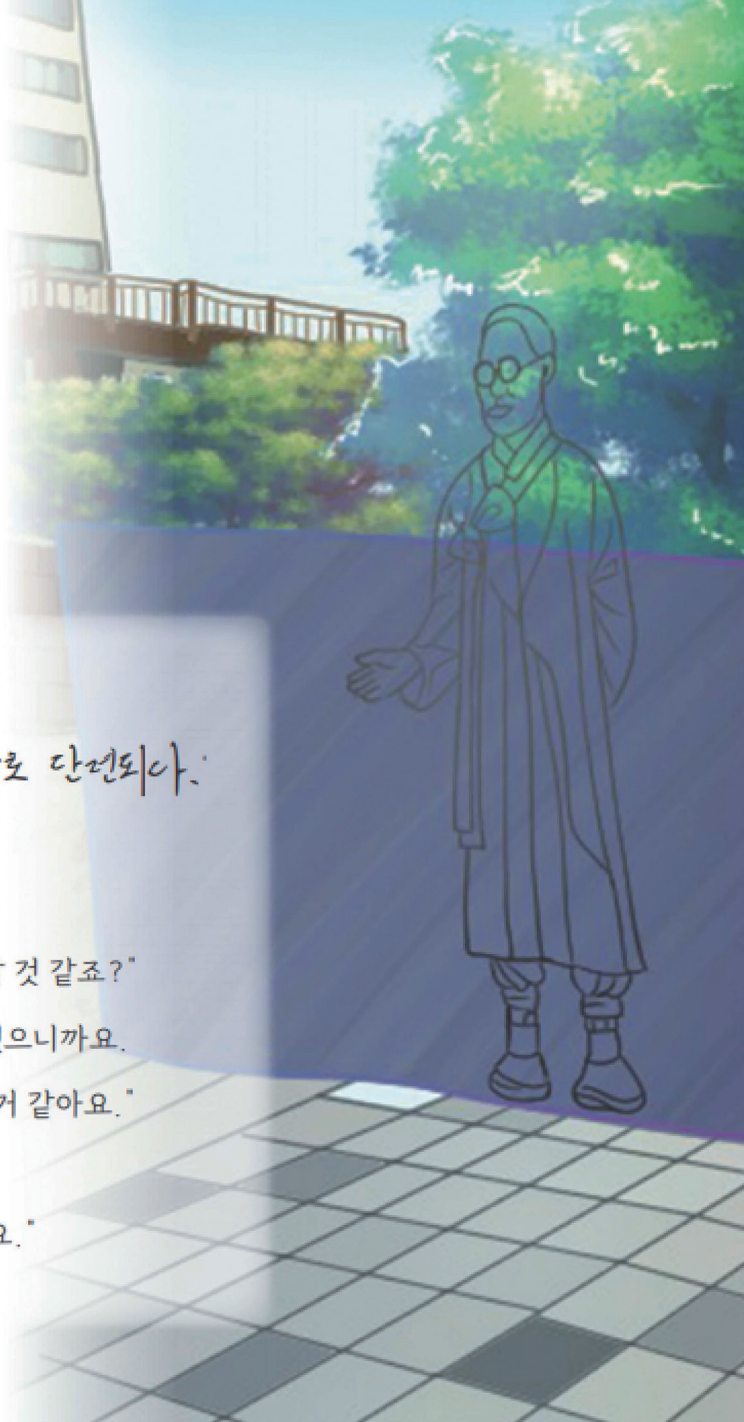
이곳에 왜 김구역사거리가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죠?”

“네. 두 번의 감옥 생활을 모두 인천에서 했으니까요.

김구 선생님에게 인천은 정말 특별한 곳일 거 같아요.”

“이곳에서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민족지도자로 더 멋지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1919년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청한 이야기
알고 있죠? 그런데, 감옥 생활로 인해 단련된 경험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되죠. 그 후 1923년 내무총장에 선임되고, 국무령과 주석을 역임하면서 27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셨어요."





이분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님이세요.

김구 선생님의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지요.

곽낙원 여사님은 **1896년 치하포 사건**으로 김구 선생님이 해주에서 인천감리서로 올 때 함께 인천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았기에 잘못하며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요. 객주 박영문의 집에서 감옥에 삼시세끼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식모로 일하며 김구 선생님 옥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탈옥 이후에는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인천감리서**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지요.

1911년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7, 8개월 만에 면회하면서도
담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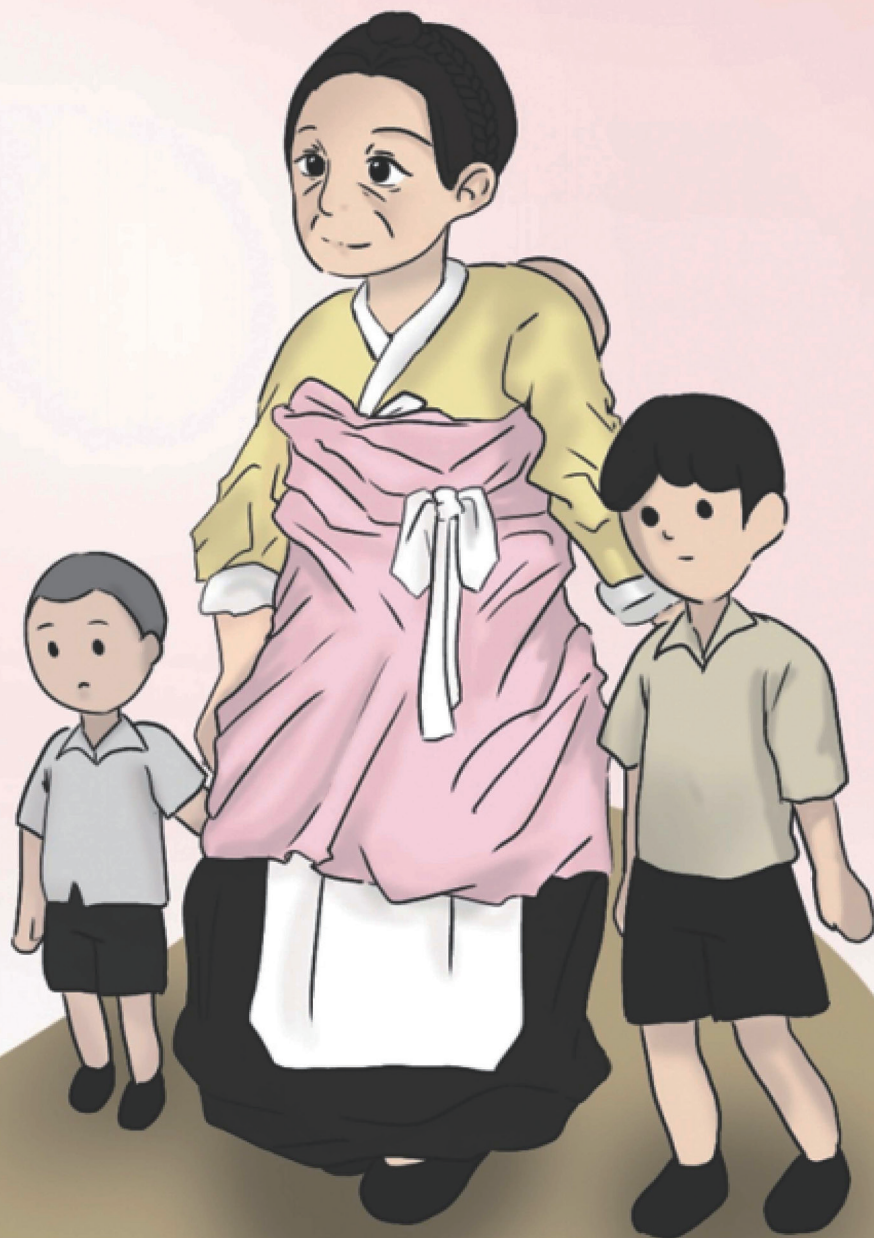
“ 나는 네가 경기 감사나 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

항상 김 구선생님의 구국운동을 지지하셨어요.

상하이에도 함께 가셔서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식모를 하셨지요.

곽낙원 여사님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

그리고 가난한 살림에도 돈을 모아 독립군 자금으로 후원하는 독립운동가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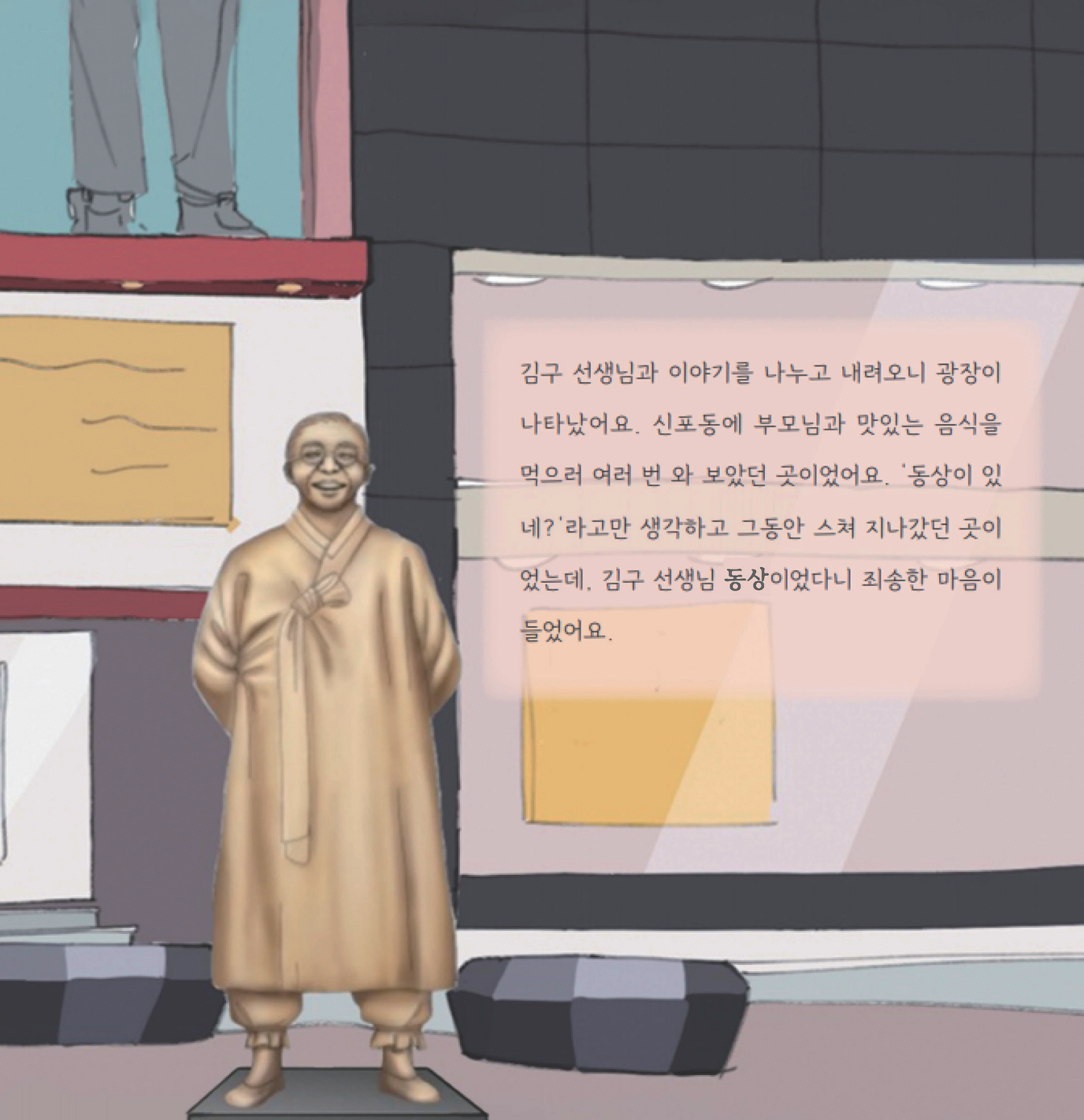


김구 선생님과 광낙원 여사님의 동상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김구역사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였어요. 곳곳에 묻어있는 김구선생님의 인천에서의 흔적이 보이는 듯했어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따라 다시 내려오다 보니 아래에 이런 조형물이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김구 선생님에게 전달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우리 한마디씩 해볼까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큰 소리로 외쳐보았어요.





김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오니 광장이
나타났어요. 신포동에 부모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여러 번 와 보았던 곳이었어요. '동상이 있
네?'라고만 생각하고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곳이
었는데, 김구 선생님 동상이었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광장 바닥에는 김구의 탄생부터 굵직한 여정들이 모두 빼곡하게 적힌 열아홉 개의 돌이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따라 걸어가듯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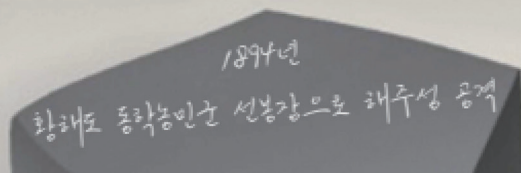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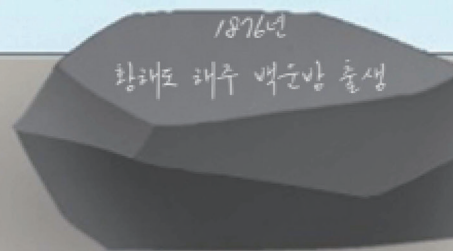
“선생님, 이 소중한 내용을 그동안 그냥 밟고 다녔다는 것에 김구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김구 선생님의 표정을 좀 봐. 괜찮다며 이제라도 나를 제대로 돌아봐 주어 고맙다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같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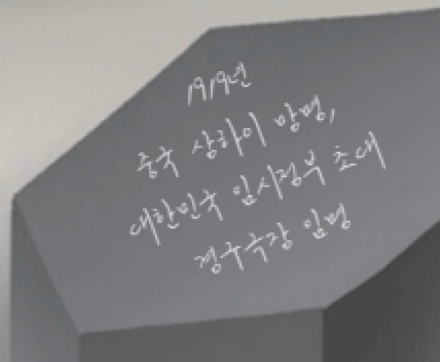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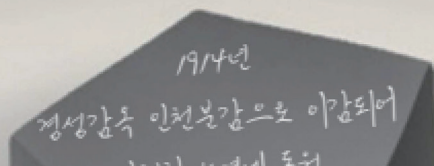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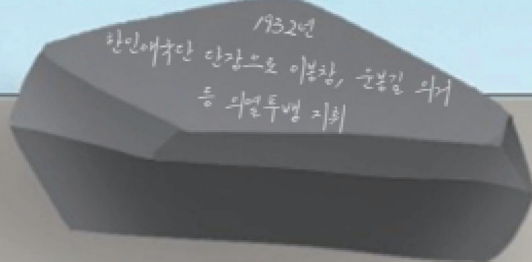
“네, 선생님.”

“김구역사거리에 와 보니, 김구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우리 빨리 학교에 가서 <백범일지> 읽어요.”

“그럴까요?”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구 선생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의말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신흥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마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마을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그림책 창작을 통해 우리 마을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 인천 중구인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글·그림 고은솔, 광지우, 김나현, 김보경, 김아영,
김아진, 김지인, 박노아, 박서연, 박선훈,
방선재, 이현서, 정혜교

지도교사 이윤희

발행 신흥여자중학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4번길 37